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수면위

사무처 직원 임용권 사무처장 위임 조례개정

의장추천 규정 사라져 의회인사권 위축 우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사무처(국·과)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한을 의회 사무처(국·과)장에게 위임하는 관련 조례가 통과될 예정이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154회 임시회 때 의회사무처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대구시장의 임용권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대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는 등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같은 요지의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회 일각에서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던 종전 방식에서 의장 추천이란 규정이 사라진 채 의회사무처(국·과)장에게 위임돼, 공식적으로 의장의 의

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어 의회의 인사권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대구시의원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을 지낸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무처장도 집행부 사람이다. 별정직 등이 처장 눈치를 보면,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사안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회사무처(국·과)의 일반직까지 의회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전 단계 조치라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처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때, 규정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의장과 상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장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것이다.

장경훈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각 시·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

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추이를 지켜본 뒤 대구시의회를 정리하겠다"며 "언젠가는 의회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형태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경북도의회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7일까지 11일간 제209회 임시회를 연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 연말까지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면 현안사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안건처리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한다. 예결특위위원장에는 송필각 의원(칠곡)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미 FTA 협상 관련 건의안 △한국은행 포항본부·구미지점 존치 건의안 △경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을 처리한다. 김신곤기자